영어어문교육 *제19권* 4호 2013년 겨울

『스튜어트 리틀』의 입양 내러티브

양 승 주
(거제대)

Yang, Seung-Joo. (2013). Adoption Narrative in *Stuart Litt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9(4), 307-321.

The discourse of adoption has been dominated by adoption agencies and adoptive parents, not adoptees themselves. Under this situation, the adoptees' voice has been in silence for a long time. In transracial adoption, the grateful aspects of adoption that love sees no color are overly emphasized; racism working behind the scenes is often ignor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doption narrative, comparing the novel and the movie version of *Stuart Little* written by E. B. White. In the novel, Stuart wins the boat race without the help of his family and he becomes a substitute teacher in the school, which shows that he has a meaningful relation with the society he lives in. At the end of the novel Stuart leaves for the North of New York to find his ideal, feeling that he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This course of the novel means that Stuart is in a situation of retrieving and maintaining a connection with his culture of origin while fully participating in the dominant culture. However, Stuart portrayed as a white mouse in the movie reveals a strong desire to belong to a white family despite the difference from his appearance and size as a mouse. With Stuart assimilated into the white family, the movie shows that he relinquishes one's birth culture and fully embraces that of dominant culture.

[Stuart Little/adoption narrative, 스튜어트 리틀/입양 내러티브]

I. 서론

2008년 현재 미국에는 2만 명이 넘는 아동이 매년 다른 나라로부터 미국 시민에 의해 입양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외국 출생 아동이 국제 입양에 의해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입양의 현실이다(Messe, 2). 과거로 소급하여 입양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1851년 매사추세츠에서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양법을 통과시킨다. 미국 가족법이 영국의 관습법에 영향을 받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미국이 영국보다도 60여년 일찍 입양법을 마련한 것은 입양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이라 할 수 있다(Singley, 7). 이런 상황을 두고 미국의 한 역사가는 미국의 입양에 대한 관심은 이민과 이주의 경험과 관련한 미국이 지닌 소중한 국가적 가치 그리고 전통과 양립할 수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한다(Herman, 6). 입양에 관한 이와 같은 목소리들은 입양이 미국의 국가적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나타낸다.

초기 청교도 정착민들이 모국을 떠난 이래 스스로를 버려진 자녀로 간주하면서도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을 신에 의해 선택된 자녀로 생각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입양의 개념을 수용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미국 역사의 시작이래 유럽으로부터 집단적 이주경험,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 신생 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국가의 성장 과정은 아동이 친부모와 이별을 겪고 입양부모와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입양과정과도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고아와 입양의 개념은 미국에서 보다 두드러진 문화적 특성으로 자리하게 된다.

화이트(E. B. White)의 첫 번째 아동문학 작품인『스튜어트 리틀』(*Stuart Little*)은 1945년에 처음 출판되며 이후 1973년에 2판이 출판된다. 이러한 원작을 기반으로 모두 3편의 영화가 출시되는데, 1999년 민코프(R. Minkoff)가 감독한『스튜어트 리틀』이 콜롬비아 영화사에 의해 출시되고, 2002년 민코프가 다시 감독을 맡은『스튜어트 리틀』2편이 동명의 영화사에 의해 출시되고, 2006년 패든(A. Paden)이 감독한『스튜어트 리틀』3편이 소니 영화사에 의해 출시된다. 영화의 경우 초등 직전의 유아들이 많이 볼 만큼 잘 알려져 있으며, 2002년 영화가 나오는 것과 함께 플레이스테이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디오 게임도 출시되어 있다. 2006년에는 아동극작가 로비네트(Robinette)가 만든 뮤지컬 버전이 출판되는데, 영화가 원작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면서 제작되었다면, 단막극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버전은 원작의 플롯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는 특징을 갖는다.[1] 이와 같이 원작과 관련한 다양한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을 주로 원작과 민코프의 영화(1999)로 한정지으려는 것은 원작이 입양을 은유적으로 다루는데 비해 민코프의 영화(1999)가 입양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입양을 중심으로 원작과 영화를 비교해보는 것이 입양의 논의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화이트의『스튜어트 리틀』이 1945년 처음 출판될 때 스튜어트(Stuart)는 인간 가족에 태어난 것으로 언급되지만, 이후 중판이 나올 때에 스튜어트는 인간 가족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도착한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다(Bradford, 2). 이와 같이 원작의 내용에서 스튜어트의 출생이 도착으로 바뀌는 것은 출판

[1] 로비네트의 뮤지컬 버전은 스튜어트의 출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미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며, 스튜어트의 친구인 마갈로를 등장시키고, 헤리엇 일화를 빠뜨리지 않는 등 원작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뮤지컬 버전의 결말은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스튜어트가 마갈로를 찾았는지 그리고 스튜어트가 가족에게로 되돌아오는지는 관객이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 말하면서 관객의 상상력을 강조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당시 쥐의 외모를 지닌 스튜어트가 인간 가족에 출생하는 것에 대한 독자의 거부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입양의 개념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미국의 문화적 DNA처럼 작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간 가족에 쥐가 단순히 반려 동물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가족의 실제적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입양 내러티브로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입양기관과 입양 부모들이 주도해온 입양 담론의 역사에서 입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침묵의 상태 속에 있다. 인종간 입양의 경우 입양을 통해 사랑은 인종을 초월한다는 입양의 시혜적 측면만이 강조되면서 입양에 은밀히 개입되는 인종차별적 시선은 간과되고 있다. 특히 유색인 아동이 백인 가정에 입양되는 인종간 입양의 경우 사회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비롯되는 인종 차별의 시선과 소수 인종으로서 피입양인이 겪는 일상의 현실적 어려움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원작과 영화에서 인종간 입양에서 입양 부모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입양인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여전히 목소리를 얻지 못하는 피입양인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원작과 영화에 나타난 입양 내러티브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원작 소설

그리스 비극『오이디푸스 왕』(*King Oedipus*)의 주인공이 이웃 나라에 입양되는 예에서 보듯 입양에 관한 문학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적 미국 사회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문학에서 입양은 그 중요성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입양 내러티브를 포함하는 고아소설은 "역사 소설로부터 20세기 후반의 문제소설에 이르기까지 아동문학에 지속적인 영향"(Nelson 89)을 끼치는 가운데, 입양은 하나의 내러티브인 동시에 미국 문화의 변화하는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틀이 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인종간 입양을 다루는 화이트의『스튜어트 리틀』이 출판되던 1945년은 미국 사회에서 입양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이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간 입양이 시도되는 것은 1차 대전 이후이지만 1945년 출판된 화이트의『스튜어트 리틀』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나는 인종간 입양의 배경은 2차 대전 이후의 상황과 더 많이 연관된다. 미국 사회는 2차 대전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인종간 입양을 받아들이며, 특히 일본에 원자폭탄의 투하로 고아가 된 아동을 받아들이게 된다. 1949년 웰컴 하우스(Welcome House)를 설립했던 펄벅(Pearl Buck)은 "아이의 인종과 종교가 무엇이든 아이는 아이이다"라고 주장하며 2차 대전 이후 당시 미국에 아시아계의 인종간 입양을 주도한 예이다(Creagh 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원작을 입양 내러티브의 관점으로 읽을 때 모든 시설과 설비가 인간의 크기에 맞추어진 인간의 가정에서 쥐의 크기와 쥐의 외모로 살아야만 하는 등장인물의 상황은 비유적으로 백인 가정에 유색인종으로 입양된 아동의 삶과도 유사한 설정이다. 『스튜어트 리틀』의 다음 장면은 자기 반영적인(self-reflexive) 틀을 통해 언어 표현이 입양 아동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크기와 외모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면에서 쥐처럼 생긴 스튜어트에게 쥐라는 호칭은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스튜어트가 훗날 해리어트 애임즈(Harriet Ames)라는 미모의 여성에게 생애 처음으로 데이트를 희망하는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유일한 결점이 쥐처럼 생겼다고 밝히는 것도 쥐라는 호칭이 상처가 될 수 있는 예이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을 리틀 부부는 스튜어트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대화에서 쥐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요 책에서 "세 마리 장님 쥐, 어떻게 도망가는지 볼까"라고 쥐가 언급된 쪽을 뜯어낸다(10). 리틀이 말하는 것처럼 농부의 아내가 칼로 쥐의 꼬리를 자른다는 동요의 내용을 통해 동요는 스튜어트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고 악몽을 꾸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리틀 부인도 "집안 전체에서 아무 것도 심지어 쥐조차도 꼼짝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라는 시는 쥐를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으로 스튜어트가 이런 시를 듣게 되면 당황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10). 리틀 가족은 쥐가 언급된 시에서 가족들이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시의 개작 과정을 보여준다. 리틀은 시에서 집(house)과 운이 맞을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리틀 부인과 아들 죠지가 번갈아가며 쥐를 대신할 표현으로 이(louse)와 들꿩(grouse)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이가 선정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리틀 부인은 시에서 쥐를 지워내고 그 자리에 이를 집어넣게 되고, 스튜어트는 본래 시가 "집안 전체에서 아무것도 이 조차도 꼼짝 않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로 알게 된다. 여기서 쥐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은 다문화 사회 또는 다인종 사회에서 언어의 표현이나 용어가 인종, 민족,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치적 올바름의 수용과 관련된다. 언어 표현이 사람의 사고를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이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입양과 관련하여 언어의 변화를 통해 의도하는 것과 당면한 현실이 어긋나고 있을 때 사회에서 소수 인종에 속한 입양 아동들에게 언어의 변화의 시도란 현실 기만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원작에서 스튜어트가 가정으로부터 경험하는 일상의 현실은 가족들이 시의 어휘 변화를 통해 의도한 것과 상충된다. 스튜어트가 리틀 부인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해 욕조의 축축하고 어두운 배수구로 들어가는 것은 쥐의 크기라는 신체적 특성에 의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스튜어트가 배수구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녀온 이후 미끄러워진 몸에 샤워를 하고 리틀 부인의 방향제를 사용해야할 만큼 지저분한(dirty) 일이다. 또한 가족들이 탁구를 칠 때에도 스튜어트는 가구 밑으로 들어간 탁구공을 얼굴에 땀을 흐를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밀어내는 것은 그가 어려운(difficult)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죠지의 피아노 건반이 밑으로 내려앉았을 때 스튜어트가 피아노 내부로 들어가 건반에 연결된 펠트 해머의 움직임을 피해가며 키를 밀어 올리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건 위험한(dangerous)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막내로 입양된 스튜어트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3D 성격을 지닌 것이지만 가족들은 스튜어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스튜어트도 불평 없이 기꺼이 해낸다. 이와 같이 스튜어트가 가족들 사이에서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은 원작을 입양 문학의 역사에 연결해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아동 문학 속에 등장하는 고아와 입양 아동은 미국 문화의 변화가 요구하는 관심사를 반영하는데, 넬슨(Nelson)은 미국 문화의 변화에 따라 "노동하는 아동" "탐험기의 생존자"로서 아동, "소중한 아이"로 묘사된다고 지적한다.[2] "노동하는 아동"은 아동이 고용주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주는 아동에게 숙소, 식사, 기본적인 사회화를 제공하던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아동의 경향이다. 스튜어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서 3D 관련한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자신의 자발적이 아닌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일들이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은 스튜어트를 입양 문학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한 경향인 노동하는 아동에 대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작품이 고아를 등장시키는 미국 아동문학의 역사적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작품이 지닌 입양 문학과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차대전 이후의 입양 아동으로서 스튜어트의 현실이 식민 시대의 것에 비할 만큼 열악한 것임을 말해준다.

가정은 가구와 설비의 크기가 보통의 인간에게 맞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쥐의 크기와 외모를 지닌 스튜어트가 어려움뿐만 아니라 위험을 겪어야만 하는 장소라면, 센트럴 파크 연못은 성인의 몸조차도 작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고 스튜어트와 인간의 크기의 차이를 사소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장소이다. 원작의 삽화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보트 경주를 구경하기 위해 연못으로 향하는 성인 구경꾼들을 센트럴 파크의 배경과 대비시키면서

[2] 아동 문학에 등장하는 유랑 아동(고아, 입양아, 유사 입양아, 버려진 아동, 도시 이주아동 등)은 미국 문화의 변화가 요구하는 관심사를 반영한다.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은 유랑 아동을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하며 아동이 고용주에게 맡겨질 때 아동은 숙소, 식사, 기본적인 사회화를 제공받으며 고용주는 아동의 노동력을 얻는 모습을 묘사한다. 19 세기의 경우는 미국의 꿈과 개인적 노력, 모험과 생존의 정신이 강조되면서 고아 소년들이 근면, 재치, 행운을 통해 출세하고 재산을 모으는 강인한 생존자로 묘사되면서 고아 생존기 또는 고아 모험담의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20 세기 후반의 고아소설에서 고아는 어른의 감정적 행복에 기여하는 개인으로서 묘사되는 경향을 보인다(Nelson , 79-9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소형 인물의 모습으로 시각화한다. 스튜어트는 크기의 문제로 덜 제한받는 연못에서 소형의 배를 운전하면서 가정에서 크기의 문제로 겪었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가정 외부의 장소에서 자유로움과 활기를 느낀다. 쥐의 외모와 크기에서 비롯되는 다름과 차이는 스튜어트에게 그의 가정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작용하며 그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게 된다. 스튜어트가 보트 경주에서 승리했을 때 주변에 모여든 군중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배의 주인으로부터도 배를 언제든 써도 좋다는 파격적 제안을 받을 만큼의 큰 성취감을 경험하지만, 그의 형 죠지가 그날 하루 종일 어느 있었냐고 물을 때 "시내를 돌아다녔다"(46)는 스튜어트의 짧은 대답은 스튜어트와 그의 가정 사이의 단절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스튜어트가 가정을 떠나는 순간 가족을 잊지 않기 위해 엄마의 머리카락 한 올을 싸오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떠난다는 말없이 집을 나온다. 가족의 배려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를 침묵하도록 만드는 다음과 같은 심리가 작용한다. 입양인은 인종간 입양의 경우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양육해준 것에 감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입양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커다란 "죄책감"을 갖으며 또한 입양인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갖는 진실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스스로를 "배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해리스, 508). 입양인이 입양부모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좀처럼 자신의 내면의 느낌을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경향은 바로 이러한 심리에서 기인한다.

스튜어트에게 가정과 연못은 서로 대조되는 공간으로 연못에서도 위험과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자신만이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풍이 노래 부르듯 불어오고 배의 삭구에 닿아 휘파람소리를 내며 갑판 위로 푸른 물보라를 흩뿌릴 때 스튜어트가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야"(38)라며 기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쥐의 크기와 외모 때문에 스튜어트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연못에서 자유와 활기를 느낀다는 것은 유색인 입양 아동의 관점이 백인 입양 부모의 것이 얼마나 크게 다를 수 있는 지를 암시한다.

영화(1999)는 마갈로를 등장시키지도 않으며 스튜어트를 가정에 머물게 하고 백인 가정에 동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데 반해, 원작은 스튜어트가 마갈로를 찾고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기 위해 뉴욕의 북부를 향해 집을 떠나는 열린 결말을 보여준다. 스튜어트가 마갈로를 찾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로 끝나는 이와 같은 열린 결말은 아동문학의 관례를 위반한 것이다. 마갈로를 찾는 도중 스튜어트에게 해리엇 에임즈라는 여성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정착의 유혹은 스튜어트의 여행과 탐험을 포기할 만큼 강렬한 것이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커다란 세계에서 살아온 스튜어트에게 그녀는 스튜어트와 같은 크기였을 뿐만 아니라 재력과 미모를 겸비한 젊은 여인이다. 더구나 스튜어트가 그녀를 만난 장소는 잉글랜드의 목가적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지녔으며 삽화에서 보여주듯 "에덴적 특성"(Agosta, 54)을 갖기 때문에 스튜어트에게 여행으로부터의 훌륭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정착지가 될 만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원작이 끝나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의 성취를 향한 여행"(Agosta, 56)을 상징하는 마갈로가 북부의 의미와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트에게 뉴욕 북부와 가정의 관계는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대치하는 것으로 레러(Lerer)가 지적한 것처럼 스튜어트가 북부를 향하는 것은 "전쟁 이전의 미국의 목가적 비전"을 지향함으로써 "워싱톤 어빙과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에게 영감을 준 뉴욕 북부지방, 작은 마을, 그리고 강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의미한다(297). 여기서 뉴욕의 북부란 20세기에는 더 이상 존재하는 않는 변경지방 또는 미개척지로 실제의 장소라기보다는 스튜어트에게 크기와 외모로 제한받지 않는 이상적인 장소인 동시에 끊임없는 탐험과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소이다. 따라서 스튜어트가 북부로 향하는 것은 마갈로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찾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튜어트에게 북부로의 여행은 입양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와 연관된다. 이는 인종적 국가적 문화적 경계에 위치한 입양인이 친부모와 입양부모 사이에서 인종, 국가, 문화와 관련된 다중적인 뿌리를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정체성"(Watkins, 259)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험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2. 영화 버전

입양을 비유적으로 다룬 원작은 입양인이 가정을 떠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는 반면, 민코프의『스튜어트 리틀』(1999)은 입양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입양인이 가정을 떠나지 않고 백인 가정에 동화되는 과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인종간 입양의 성공적인 경우를 미화시킨 민코프의 영화가 등장하는 199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간 입양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로 1970년대와 대조를 이룬다. 먼저 1970년대는 국립 흑인 사회사업가 연합(NABSW)이 인종간 입양의 경우 입양인은 같은 종의 역할모델과 접촉의 부재 때문에 열악한 인종적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종간 입양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던 시기였다.[3] 이는 흑인들 사이에서 같은 인종 사이에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형성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인종매칭 정책(race-matching policies)을 시행하는 근거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후 인종매칭 정책은 많은 유색인 아동들에게 같은 인종 가정의 입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는 비난을 불러왔으며 인종보다는 가정의 영속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의해 점차 그 영향력이 약화된다. 1994년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는 어떤 입양기관도 인종을 이유로 입양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다인종 배치법(Multiethinic Placement Act)이 제정되고, 이후 1996년 보다 강화된 다인종

[3] http://en.wikipedia.org/wiki/interracial_adop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배치법의 인종간 규정(Multiethnic Placement Act - Interethnic Provisions)이 국회에 다시 통과됨으로써 인종간 입양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큰 목소리를 얻게 된다.[4] 1990년대에 들어 인종간 입양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은 다인종 배치법과 같은 입양법이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던 시기와 일치한다.[5] 아동을 주요 관객으로 삼으면서 입양주제를 다룬 영화도 함께 나타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생 여학생이 미혼 선생님에게 입양되는 내용의 『마틸다』(*Matilda*)(1996) 이외에도 종간 입양을 인종간 입양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는 『베베』(*Bebe*)(1995)와 『스튜어트 리틀』(1999)이 출시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통과된 다인종 배치법은 한편으로는 인종매칭 정책의 폐해를 줄임으로써 유색인종의 아동이 입양 가정에 단기간에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양법이 백인 입양 부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며 입양에 개입되는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시선을 두도록 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인종 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로 백인들인데 이들은 유색인 아동이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백인계 아동이 유색인 가정에 입양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냄으로써 다인종 배치법에 깃든 백인중심의 시각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인종간 입양을 다루는 작품과 영화에서 백인 중심의 시각을 읽어내는 것은 입양을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에 벗어나 입양을 보다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민코프의 영화(1999)는 원작에서 스튜어트가 리틀 가정에 도착하는 것으로 묘사된 부분을 외부의 고아원으로부터 입양되는 장면으로 해석한다. 스튜어트가 고아원으로부터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적인 위협은 스노우벨이라는 고양이와 죠지로부터 온다. 고양이는 스튜어트에게 달려들어 그를 먹잇감으로 알고 입안으로 집어넣는데, 리틀 부부는 스튜어트가 가족의 일원임을 선언하며 그를 해치면 쫓겨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또한 죠지는 쥐의 외모를 지닌 스튜어트를 처음 보는 순간 "너 쥐처럼 생겼구나"라고 말하며 외면해버린다. 고양이가 스튜어트를 입안에 넣는 것과 죠지가 스튜어트를 처음 보면서 하는 말은 모두 스튜어트를 쥐로만 바라보고 쥐 이상의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온 쥐가 애완동물로부터도 위험을 겪고 가족인 형으로부터도 쥐를 닮은 외모 때문에 외면당할 만큼이나 스튜어트가 가족의 내부에서 위태로운 지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원작에서 스튜어트가 혼자서 보트 경주에 참가한 것과 달리 민코프의 영화

---

[4] http://encyclopedia.adoption.com/entry/Multiethnic-Placement-Act-MEPA/233/1.html

[5] 1990년대 접어들어 집중적으로 출시된 인종간 입양의 영화의 예는 입양인 친부모를 찾아나서는 『재난 다루기』(*Flirting With Disaster*)(1996), 백인 고아가 아프리카 열대림에서 암컷 유인원에 의해 성장하는 『그레이스토크』(*Greystoke*)(1993), 디즈니 만화 버전의 『타잔』(*Tarzan*)(1999) , 그리고 흑인 아동을 백인 가정에 위탁하는 것에 관한 국가적 논쟁을 다루는 『이사야를 잃으면』(Losing Isaih)(1995) 등이 있다(Gailey, 80-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99)에서는 죠지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보트 경주에 관련됨으로써 보트 경주는 가족의 행사가 된다. 영화의 모형 보트 경주에서 스튜어트가 우승했을 때 죠지는 군중들의 "저 쥐는 누구지?"라는 질문에 "쥐가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라고 대답한다. 이전에 죠지가 스튜어트의 쥐를 닮은 모습에 실망하던 태도로부터 자랑스럽게 동생이라고 말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이유는 보트 경주를 통해 외부의 경쟁자가 설정되고 그런 경쟁의 과정에서 같은 팀에 속한 죠지와 스튜어트에게 자연스럽게 동료 의식이 발생한다. 그러나 죠지가 스튜어트를 쥐가 아니라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에는 단순히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경주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넘어 스튜어트로 하여금 주류 백인의 미국적 경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스튜어트에게 주류 백인의 정체성을 지지하도록 했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모형 보트의 이름이 미국의 주류 백인을 암시하는 와스(WASP)로 되어 있는 점, 92회를 맞이하는 모형 보트 경주가 미국의 중심부인 뉴욕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센트럴 파크의 인공연못의 모형 보트 경주는 파리의 보트 경주에서 유래한 것으로써 유럽적 과거에 기반한 미국적 경험이라는 점, 스튜어트와 죠지와 처음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된 장소인 죠지의 지하 장난감 방은 미국의 과거를 암시하는 모형 서부로 꾸며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민코프의 영화는 스튜어트를 백색의 쥐로 시각화하여 백인의 가정에 들여오는 영화적 상상력은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의 이면에 백인 중심의 무의식의 작용을 통한 동화를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영화의 결말에서 스노우벨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가족의 애완동물로서 스노우벨은 자신의 먹잇감에 불과한 스튜어트가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자존심 상해하지만 결국 스튜어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위기에 처한 스튜어트를 구해 가족과 재회를 이룬다. 그러나 스노우벨의 태도 변화에서 애완동물에 부여한 부자연스런 미국의 인종적 동화의 방식를 읽어낼 수 있다. 집스노우벨은 길고양이들과 계략을 꾸며 스튜어트를 내쫓지만, 리틀 가족은 스튜어트를 찾아 나서게 된다. 스노우벨은 길고양이 친구를 따라 스튜어트를 제거하는 계획에 참여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길고양이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스튜어트와 같이 리틀 가족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스노우벨이 자신과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인 길고양이를 버리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라 생각하는 스튜어트를 선택하는 것은 스튜어트와 "하비투스(habitus)"(Bradford, 4)를 상당 부분 공유하기 때문이다. 리틀 가정이 표방하는 백인 중산층의 하비투스에 이미 길들여진 스노우벨이 충분한 식사와 안락한 잠자리를 의미하는 리틀 가정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먹이를 구하려고 길거리와 쓰레기통을 전전해야 하거나 거친 말투와 행동을 의미하는 길고양이들에 등을 돌리도록 유도되는 상황은 샐러드 주발(Salad Bowl) 패러다임이라는 억지스런 미국의 인종 동화정책과 닮아 있다. 백인 가정 외부의 길 고양이들은 회색 또는 거무튀튀한 색으로 시각화되는 반면, 백인 가정에 살면서 백인 가정에 소속되길 희망하는 스튜어트와 스노우벨은 흰색으로 영상화되는데, 이러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화의 방식은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억지스런 동화 정책의 일면을 강조한다.

1999년 영화가 고아원의 입양 장면으로 시작하다면, 2002년의 영화는 입양 장면을 생략하고 곧바로 축구 장면으로 시작한다. 2002년 영화의 첫 장면에서 스튜어트는 교체선수로 축구 경기에 참가하면서 원작이나 1999년 영화에 비해 훨씬 능동적인 스튜어트의 모습을 보여준다. 죠지가 걷어 찬 축구공에 달라붙어 공과 함께 골대로 들어간 스튜어트는 골 도우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1999년 영화에서 죠지는 입양이 있는 날 공놀이, 레슬링, 그리고 침 뱉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남자 아이를 희망하고 스튜어트가 입양아로 선정됨으로써 입양은 리틀 가정에서 모두 남성 또는 소년들의 결합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2002년 영화는 리틀 가정에 여자 아이가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남녀의 비율이 보다 균형 있게 맞추어 진다. 또한 2002년 영화는 죠지의 친구로 흑인 아이를 등장시켜 유색 인종 소년의 모습을 도입하고, 스튜어트에게도 초반부터 마갈로라는 새를 친구로 설정하여 그들만의 우정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작과 영화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결말 부분이다. 원작에서는 스튜어트가 철새 마갈로를 찾아 길을 떠나며, 영화는 마갈로 부분이 삭제되고 스튜어트가 스노우벨과 함께 가정으로 되돌아와 가족과 재회한다. 스튜어트가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스튜어트의 크기였기 때문에 에임즈와 스튜어트 사이의 신체적 유사성은 둘을 서로 잘 어울릴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젊고 예쁘고 맵시 있는 옷차림을 한 유복한 집안 출신인 에임즈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데이트가 에임즈의 이해심과 적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불발로 끝나게 되자, 오히려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찾을 가망도 뚜렷하지 않은 마갈로를 향한 갈망은 더욱 커진다. 에임즈가 미국의 "구식 자본주의 또는 귀족적 점잖음"(Elledge 257)을 보여준다면 마갈로는 그와 대조되는 자연적 아름다움이나 순수한 이상의 추구를 나타낸다.

영화(1999)는 원작에서 스튜어트의 '도착'을 '입양'으로 읽어내고 시작 장면을 입양으로 설정하여 스튜어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영화에서 공립 고아원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제도적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가 아동을 성인에 의한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백인 미국인이 크기와 외모가 다른 스튜어트를 가족이라 불러주기만 하면 스튜어트와 관련한 가정 외부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2002년 영화는 1999년 영화에 더하여 스튜어트에게 학교에 다니도록 설정함으로써 학교라는 사회화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스튜어트가 마갈로를 찾아 떠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리틀 부부의 미국 가정을 보호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영화의 방식은 2차 대전이후 점차 본격화되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냉전이라는 외부의 위협에 아동 문학 작가가 반응하는 방식과 닮아있다.[6] 냉전 시대가 훨씬 지난 1999년과 2002년의 시점에 각각 영상화된 영화가 냉전 시대의 아동 작가의 방식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나는 배경에는 2001년 911 사태를 전후로 미국에 대한 테러라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는 미국의 현실이 작용한다. 원작이 마갈로를 쫓아 가정을 떠나 이상과 순수를 추구하는 모험적인 스튜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영화는 가정으로 되돌아와 백인 가정에 동화되는 스튜어트를 보여주면서 가족애의 소중함을 강조한다. 입양 내러티브를 통해 가정 외부의 이상과 모험을 강조하는 원작 소설이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국가적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백인 가정의 내부에 아동을 동화시키려는 영화의 방식은 911테러로 상징되는 외적 위협에서 기인하는 불안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애를 통해 아동을 가족의 보호 하에 두길 희망하는 미국의 태도를 반영한다.

III. 결론

입양 내러티브는 생물학적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는 보편적 인류애의 미담인 동시에 물려받은 관계보다는 선택에 의한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민주적인 이상과도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인종간 입양의 중심에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치성을 띠고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 인종간 입양이 피부색과 인종의 차이로 갈려진 혐오의 세계에 차이를 넘어서는 사랑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인종간 입양은 가난한 나라의 가장한 소중한 자원에 대한 상실과 착취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아동 개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종간 입양을 만들어내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비판하는 이들로 나뉘어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Bartholet 63). 이러한 논쟁은 인종간 입양을 통해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해주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물질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1945년『스튜어트 리틀』을 발표한 이래 약 25년간 전체 3편의 작품을 발표하는데, 그의 문학은 아동문학의 역사적 관점에서 1960년대 후반의 신사실주의(New Realism)의 바로 이전에 위치한다(Agosta, 169). 60년대 이후

[6] 아동문학 작가들은 냉전에 반응하여 외부세계의 재난으로부터 보호로 핵가족과 단란함을 강조하며, 50 년대의 아동 소설은 당시의 불안에 침묵하고 불안을 예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두드러진다. 또한 50 년대 사회가 구축한 아동기는 성인 부양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시기이며, 학교, 클럽, 그리고 또래 활동에 의한 사회화의 시기이며, 18 세 이전에는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이다(Murray 17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동문학의 경향이 아동도 삶의 복잡성과 이중성에 연루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용하고 마약, 이혼, 죽음, 폭력, 아동학대, 인종적 편견 등에 대한 솔직한 묘사를 아동문학에 과감하게 포함시키려 했다면, 60년대 이전에 이러한 소재들은 아동문학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스튜어트 리틀』 원작을 입양의 내러티브로 읽을 때 입양에 대한 입양 가족의 시혜적 입장과 크기와 외모의 차이가 위험의 표지를 만들어낸다는 입양인의 입장 사이의 대비를 통해 입양에 개입되는 인종주의가 은밀하게 드러난다. 화이트 문학에서 드러나는 입양과 인종주의적 주제는 아동에 대한 과감한 주제와 솔직한 묘사로 특징지어지는 신사실주의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입양 내러티브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그 이유는 입양인이 다양한 경계 지점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버려짐과 구원받음, 출생가족과 입양가족, 과거에 형성된 자아와 미래를 향해 열린 자아, 물려받은 혈통과 선택된 혈통의 경계에서 자신의 반쪽씩만을 양쪽 편에 소속한 채 스스로의 모습을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입양인의 정체성은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 인종적,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의 경계에서 살기 때문에 겪는 상실과 소외는 많은 인종간 입양인에게 정신적 질환을 야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트렌카, 32). 성년의 입양인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 것은 버림받고 무시된 개인사를 복원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의 퍼즐 조각을 찾으려는 시도로 입양으로 인한 상실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걸쳐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원작이 입양인의 아동과 성인 양편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원작을 기반으로 한 각색 영화는 입양인의 아동기 모습만을 보여준다. 입양 내러티브에서 유색인종 아동의 아동기 모습만 존재하는 것은 "입양 부모가 입양 아동을 애착 관계에서만 아이를 기르고 마치 친 자녀인 것"(레이블, 344)과 같은 허구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유색인종 입양인의 성인기가 존재하는 것은 입양인으로 하여금 인종적 "정체성과 소속 같은 핵심적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준다. 인종간 입양의 가정에서 유색 인종의 아동이 취학 연령에 이르면 다른 인종의 사람과 차이를 의식하고 점차 인종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인종의 지배담론에 배척되는 동시에 그 지배담론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내부의 이방인(outsider within)"(트렌카, 18)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인종에 대한 보다 솔직한 태도를 지향하는 입양 내러티브를 위해서 입양 아동을 영원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두고 입양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억지스럽게 강조하는 대신 입양 아동이 성인기로 나아가고 가정 외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우며 스스로의 인종적 정체성을 찾는 모습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원작에서 스튜어트가 가족 외부로부터 조언을 듣고 자신만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뉴욕의 북부를 향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과거의 미국의 목가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비전을 지닌 장소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작에서 스튜어트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보트경주에 홀로 참여하여 승리하거나 학교에 들러 대리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가정 외부의 세계와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누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원작이 스튜어트로 하여금 주류 문화에 참여하면서도 문화적 기원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통합(integration)"(Watkins, 262 재인용)이라는 문화 변용을 시도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영화(1999)는 쥐의 외모와 크기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튜어트로 하여금 백인 가정에 속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도록 하고 스튜어트의 털마저 백색으로 시각화하여 백인 가정의 가치를 지지하도록 한다. 영화의 끝에서 "이 세상의 어떤 리틀도 이 집을 찾을 수 있어요(Every Little in the world can find the Little house)"라는 스튜어트의 대사는 어떤 유색인 아동도 백인 가정에 들어와 백인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인종적 허구를 드러낸다. 여기서 영화(1999)의 스튜어트가 자신의 출생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충실하게 수용하는 것은 "동화(assimilation)"(Watkins, 262 재인용)라는 문화 변용의 과정 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원작과 영화 모두에서 쥐를 인간의 가정에 들어오게 한다는 종간 입양의 방식은 인종간 입양을 나타내는 은유이며, 이러한 종간 입양의 방식은 다름과 차이에 대한 관용과 수용의 태도를 탐사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입양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유색 인종의 아동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쥐 인물이 유색 인종의 아동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식은 영화와 소설 모두 종간 입양의 은유 없이는 인종간 입양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인종 차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간 입양이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우며 여전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주류 미국 사회가 인종간 입양에 은밀히 개입된 인종주의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레이블, 존. (2012). 평생가는 충격, 지속적 필요. 토비야스 휘비네스 외 20인(편집),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 서울: 뿌리의 집. 337-354.

트렌카, 제인 정. 오패러, 줄리아 치니에르. 신 선영. 내부의 이방인, 침묵을 깨다. 토비야스 휘비네스 외 20인(편집),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 서울: 뿌리의 집. 14-43.

해리스, 페를리타. (2012). 홀로 슬퍼하지 마세요. 토비야스 휘비네스 외 20인(편집),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울: 뿌리의 집. 487-518.

Agosta, Lucien. L. (1995). *E. B. White: The children's books*. New York: Twayne Publishers.

Bartholet, Elizabeth. (2006). International adoption. In Lori Askeland(Ed.), *Children and youth in adoption, orphanage, and foster care: A historical handbook and guide*. CT: Greenwood Press. 63-78.

Bradford, Clare. (2005). "Whiteness is all": *Stuart Little* and the American dream, in adaptation as a strategy of children's literature, Lettera Publishing House. 92-103.

Creagh, Dianne. (2006). Science, social work, and bureaucracy: Cautious developments in adoption and foster care, 1930-1969. In Lori Askeland(Ed.), *Children and youth in adoption, orphanage, and foster care: A historical handbook and guide*. CT: Greenwood Press. 31-44.

Elledge, Scott. (1984). *E. B. White: A biography*. New York: Norton, 1984.

Gailey, Christine Ward. (2006). Urchins, orphans, monsters, and victims: Images of adoptive families in U.S. commercial films, 1950-2000. In Katrina Wegar(Ed.), *Adoptive families in a diverse societ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71-88.

Robinette, Joseph. (2006). *The adventure of Stuart Little*. Illinois: The Dramatic Publishing Company.

Lerer, Seth. (2008).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s history from Aesop to Harry Pot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lson, Claudia. (2006). The orphan in American children's literature. In Lori Askeland(Ed.), *Children and youth in adoption, orphanage, and foster care: A historical handbook and guide*. CT: Greenwood Press. 79-91.

Messe, Ruth Lyn. (2010). *Family matters: Adoption and foster care in children's literature*.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Murray, Gail Schmunk. (1998) *American children's literature and the construction of childbhood*. New York: Twayne Publishers.

Singley, Carol J. (2011). *Adopting America: Childhood, ki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tkins, Mary. (2006). Adoption and identity: Nomadic possibilities for reconceiving the self. In Katrina Wegar(Ed.), *Adoptive families in a diverse society*.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59-74.

White, E. B. (1973). *Stuart Little*. New York: Harper Trophy.

http://en.wikipedea.org/wiki/interracial_adotion

http://encyclopedia.adoption.com/entry/Multiethnic-Placement-Act-MEPA/233/l.html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College

양승주
거제대학교 비즈니스외국어과
656-701 경남 거제시 마전1길 91번지
Tel: (055) 680-1608
Email: sjyj@koje.ac.kr

Received in October 15th, 2013
Reviewed in November 26th,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3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